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연준, 미국 가계 지출 후 남은 저축액 규모 모른다
- WSJ: 미국은 투자 유입이 줄었지만 여전히 최대 투자 대상국
- Bloomberg: 연준, 오늘 6월 회의 의사록 공개한다 WSJ:
- WSJ: 저소득, 서비스직 근로자 재택근무가 팬데믹 전보다 길어

"

[미국 금융]

- CNBC:연준 의사록 공개 앞두고 2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
- Bloomberg: 미 증시 기술주들 상승세 유지속에 혼조세

[뉴욕시/뉴저지]

- Bloomberg: 뉴욕시 대기 공기 해로운 수준...캐나다 화재와는 무관
- NJ Government: 뉴저지와 한국 교역/투자

[미중관계]

- NYT:엘런 재무장관, 양국 긴장 풀기 위해 중국 방문
- WSJ: 미국, 아마존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국 접근 제한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자동차 판매, 향후 우려 씻어내다
- Bloomberg; 고객 필요 때문에 로펌들 AI 전문가 고용 확대
- CNN Business: 식당 Subway 매장, 고기 제품에 큰 변화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The Fed can't decide how much money US households have left

연준, 미국 가계 지출 후 남은 저축액 규모 모른다

- 미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후 미국인들은 실제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저축을 소진 한후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 전문가들과 심지어 연준도 미국인 소비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출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인들이 여전히 약 5천억 달러의 초과 저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런데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는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지만 부채 부담 증가와 연체율 증가 때문에 경제 기반에 균열이 점점 더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WSJ: U.S. Is Top Investment Destination Despite Falling Inflows

미국은 투자 유입이 줄었지만 여전히 최대 투자 대상국

- 미국은 불확실성과 차입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 유입이 줄었지만 작년에 해외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다.
- 오늘 수요일 발표된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해외 구매가 크게 줄면서 미국 내 외국인 투자는 2021년 3천8백80억 달러에서 2022년 2천850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기업들의 가장 큰 투자 대상국이라는 것이다.
- 한편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들의 신규 해외투자는 2021년과 비교해 12% 줄어든 1조3천억달러에 그쳤는데 최근 위험 회피 등을 고려할 강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유엔은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Fed Minutes to Offer Hints on 'Awkward' Pause-and-Hike Message

연준, 오늘 6월 회의 의사록 공개한다

- 연준은 최근 금리 추가 인상을 일시 중단했고, 연준 관리들은 올해 두차례 더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예상 보다 많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혼동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기대 수준을 상회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되고 이는 상황이다”라며 이는 당분간 연준 FOMC가 긴축적이고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한마디로 이번 의사록에서 7월 금리 인상 전망 가능성을 높일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Bloomberg 기사

WSJ: Remote Work Sticks for All Kinds of Jobs

저소득, 서비스직 근로자 재택근무가 팬데믹 전보다 길어

- 예상치 못한 직종의 근로자들 재택 근무 시간이 팬데믹 이전 보다 길어지고 있다.
- 사무직 근로자만 재택 근무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저소득층, 저학력자, 서비스분야 근무자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작년에 평균적으로 재택 근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 작년 재택근무들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근로자는 2019년에 비해 하루에 약 3시간 더 재택근무를 했다. 이들의 하루 재택근무 시간은 2021년보다 1시간 19분 늘어난 반면,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은 2021년에 비해 오히려 지난해 대략 30분 줄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BC: 2-year Treasury yield dips as investors await Fed meeting minutes 연준 의사록 공개 앞두고 2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

- 오늘 연준은 지난 6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한다.

- 이의 공개를 앞두고 오늘 수요일 오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4.917 %로 거래되었다.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는 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3.88%를 기록했다.
- 투자자들은 연준의 6월 회의록 공개와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한 새로운 추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BC 기사

Bloomberg: US Futures Fall as China Data Saps Risk Appetite: Markets Wrap

미 증시 기술주들 상승세 유지속에 혼조세

- 기술주 벤치마크는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대형주인 Meta Platforms 와 Nvidia가 주도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 지수는 하락했다.
- 수요일의 오전의 관심사 가운데 직원들이 임금에 대한 파업에 가까워지면서 UPS가 2% 하락했고 암호 화폐 거래소인 Coinbase Global 는 신용 등급 하락 조정후에 하락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뉴저지

Bloomberg: NYC Air Quality Drops to Unhealthy Levels — But Canadian Fires Aren't to Blame

뉴욕시 대기 공기 해로운 수준... 캐나다 화재와는 무관

- 오늘 수요일 아침 뉴욕시의 대기 수준은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캐나다 산불 탓을 아니다.
- 이유는 주로 지상 오존, 휘발유 연기 및 자동차 배기가스가 공기중에 갇히면서 전형적인 여름철 오염 때문에 발생한다.
-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다른 주요 도시들도 오염된 수준이라는 것.

Bloomberg 기사

NJ Government: 뉴저지와 한국 교역/투자

- 뉴저지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와 한국의 상품 총 교역 규모는 48조 달러로 뉴저지의 12위 무역 파트너다.
- 그리고 지난 2003년 이래 뉴저지를 대상으로 한 그린필드 투자는 5억4천만 달러 규모다.
- 한국이 섹터별로 뉴저지에 투자한 분야는 우선 순위로 제조(34%), 전문직 서비스(16%), 생명 과학(13%), 로지스틱스(13%) 등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뉴저지정부 자료

미중 관계

NYT: Yellen's China Visit Aims to Ease Tensions Amid Deep Divisions 옐런 재무장관, 양국 긴장 풀기 위해 중국 방문

- 최근 수년간 경제와 안보 문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간에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
- 물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관세는 유효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 접근 제한 조치, 그리고 향후 미국의 대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태양광 패널 같은 주요 제품의 공급망을 중국 바깥으로 유인하고,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NYT 기사

WSJ: US to Curb China Access to Cloud Services Like Amazon, WSJ Says

미국, 아마존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국 접근 제한

-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 강화 방안 등 양국의 기술 갈등을 넓히고 있다.
-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 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중국 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Azure와 아마존 웹 서비스는 기업에 인터넷 컴퓨팅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글로벌 선두주자인데 중국에서는 현지 국영 데이터센터 파트너를 통해 알리바바 그룹과 같은 기업과 경쟁중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uto Sales Defy Gloomy Forecasts

미 자동차 판매, 향후 우려 씻어내다

- 올해 들어 미국 자동차 구입자들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늘리고 있다.
- 자동차 업계는 올해 상반기 신차 판매량이 12%에서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까지의 업계 예측을 크게 앞지르는 속도다.
- 테슬라와 리비안 뿐만 아니라 기아, 닛산 자동차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면 조만간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 3년동안 차량 부족 탓에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면서 구매자들이 구매를 미뤘은 억눌린 수요 때문이라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Law Firms Are Recruiting More AI Experts as Clients Demand 'More for Less'

고객 필요 때문에 로펌들 AI 전문가 고용 확대

- 고객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원함에 따라 로펌 호사들이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를 위해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의 고용을 늘리고 있다.
- 한마디로 인공지능 전문가 채용 광고 추세는 지난 6개월 전부터 시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률 서비스가 ChatGPT 스타일 소프트웨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힘든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Bloomgberg 기사

CNN Business: A big change is coming to Subway restaurants today

식당 Subway 매장, 고기 제품에 큰 변화 시도

- 미국 내 매장 약 20,000개 에서는 오늘 수요일부터 델리 고기를 신선하게 슬라이스할 예정이다.
- 이는 2년 전 메뉴, 식재료, 매장 외관을 새롭게 꾸민 이후 Subway가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 약 80%의 매장에서 칠면조, 페퍼로니, 로스트 비프, 햄, 살라미 등 하루에 여러 번 슬라이스하는 대부분의 육류와 함께 6천 달러짜리 기구 슬라이서를 델리 카운터 근처에 눈에 잘 띄게 진열할 예정이다. 이는 공장에서 고기를 썰어 매장으로 배송하던 이전의 방식에서 크게 바뀌게 된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정보

美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폭 1981년 이래 최대..."불황 전조"

1955년 이후 한차례 제외 경기침체 앞서 2년·10년물 금리 역전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198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한때 중단할 것으로 기대됐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 지속으로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는 장 초반 -109.50bp(1bp=0.01%p)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지역은행 사태 당시 -108.30bp보다 확대된 것이다.

또 1981년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 경기후퇴에도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초고속으로 인상한 이후 처음이다.

단기물인 2년물이 장기물인 10년물보다 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태로 거래되는 이 같은 역전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참가자들이 최근 미국 경제의 강세 조짐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앞서 선물시장에서는 지난 5월까지도 연준이 9월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금은 내년 1월은 돼야 인하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향후 경기침체의 확실한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1955년 이후 경기침체 때마다 6~24개월 전에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이 일어났으며, 단 한 차례만 잘못된 신호를 보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국제 금융 시장 동향]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 유럽은 2/4분기 기업실적에 관심
유럽주가 상승[+0.1%], 달러화강세[+0.1%], 독일 금리 상승[+2bp]

[주가*]: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부동산 관련주 강세 등으로 0.1% 상승

[환율*]: 달러화지수는 거래 감소한 가운데 6월 고용보고서 전망 등을 반영하여 상승

유로화 가치는 0.3% 하락, 엔화 가치는 0.2% 상승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